농촌만들기
입선

희망찬 함평의 마중물

함평군 학교면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

'함평군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는 폐교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조성되었으며 예비 귀농어귀촌인을 위한 현장 밀착식 맞춤형 프로그램 및 지역민과의 화합을 도모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함평군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함평군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농촌위치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897번지
농촌자원	(H/W) 체류형 주택(단독분리형 9동), 체류형 주택(공동생활형 12실), 귀농인의 집, 쉼표하우스, 영농교육관,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공동체 실습농장, 버섯 재배사 등 (S/W) 멘토-멘티 프로그램, 관내 선도농가 벤치마킹 등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의 행복농촌 성공비법

▲ 영농교육관 전경

도시민의 전원생활 및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는 한편 고령화로 인한 인구소멸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함평군에도 폐건물, 빈집 등 위해시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함평군은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처방안으로 폐교 후 방치되어 있던 학다리중앙초등학교 등 유휴시설과 빈집을 활용한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함평군은 전라남도 권역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2020년 함평군 귀농어귀촌 체류형 지원센터를 조성하고 2021년부터 귀농·귀촌 인구 유입 및 농촌 활력 창출의 거점시설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비 귀농·귀촌인이 1년 이내 기간 동안 시설에 거주하면서 영농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서 2022년까지 센터 입소자 중 함평군으로의 정착율은 73%로 귀농·귀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평군은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빈집을 활용하는 정책과 연계한 '귀농인의 집', '쉼표하우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농인의 집은 2017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하여 2023년 기준 빈집 7개소를 리모델링하였고 7명의 입주자 전원이 정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쉼표하우스는 2020년부터 추진하여 2023년 기준 빈집 25개소를 정비하였고 43명의 입주자 중 36명이 정착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2022년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에서 귀농·귀촌 분야 우수 지자체에 함평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함평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2년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침체된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 체류형 주택(공동생활형)

▲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 신규 귀농귀촌인 영농정착 특별교육

현장밀착 예비 귀농귀촌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멘토-멘티 매칭 및 관내 선도농가 벤치마킹 등 현장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부교육 내용으로는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기초 농업 이론, 공동체 농장 및 선도농장 등 전문교육, 농촌 문화생활 등이 있습니다. 특히, 멘토-멘티 매칭사업을 통한 영농기술과 인적교류 기회, 지역정보 제공 등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함평으로 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함평군의 귀농귀촌 캐릭터 '오소(OSO)'를 개발해 귀농귀촌 홍보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 실습교육

▲ 평생 멘토-멘티 매칭 프로그램

생태·문화관광의 일번지 함평군 인구유입 사업으로 새로운 도약의 물꼬를 트다!

행복농촌 NEWS

예비 귀농귀촌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기수별 피드백 시스템 도입
귀농귀촌 홍보 캐릭터
'오소(OSO)' 론칭

'함평나비대축제'와 '대한민국 국향대전' 등의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열리는 함평군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전국적인 인지도를 자랑하는 축제 현장에 작은 정원을 추가 조성하여 귀농·귀촌 방향과 농업정책 등을 홍보하고 있다.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지원정책과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지역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함평체험 팸투어' 등도 접수하고 있다. 귀농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예비 귀농·귀촌인에게는 일정 기간 농촌을 경험하며 농업 창업 과정 교육 및 실습을 받을 수 있는 함평군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도 연결해 주고 있다.

▲ 관내 선도농가 벤치마킹

"
사랑과 협력으로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마을
"

▲ 지역민과 함께 하는 공동식사

▲ 지역민과 함께 하는 문화프로그램

▲ 화합 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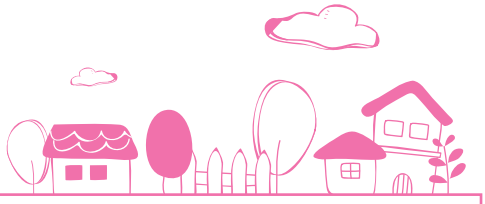
지역민과의 융화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공간 조성

귀농·귀촌인과 지역민 간의 친밀감 조성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함평군이 주최하고 (사)함평군 귀농어귀촌협의회가 주관하는 귀농·귀촌인 화합 한마음 대회에서는 귀농·귀촌인 등 200여명이 참석해 화합의 자리를 빛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건강교실 등 각종 문화프로그램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함평군은 인구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포부로 더불어 함께 사는 농촌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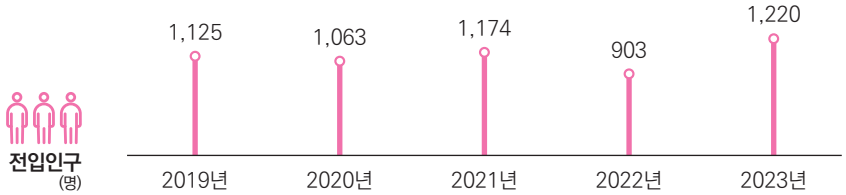
귀농귀촌 거버넌스 및 플랫폼 구축

함평군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민관 거버넌스 체계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담 행정조직과 (사)함평군 귀농어귀촌협의회 간의 주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함평군-지역민-귀농·귀촌인 간 분기별 합동워크숍 및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며 함평군 귀농·귀촌 활성화 전문 멘토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평군은 귀농·귀촌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함평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제정(2011년)을 통하여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농업 및 농촌 창업 분야별 전문가 상담데이를 운영하여 관내 빈집 및 토지 정보 공유를 통한 안정적인 정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



귀농·귀촌인 전입현황



입주현황 및 정착률

	2021년	2022년	2023년
입주현황	10세대 15명	8세대 11명	20세대 30명
관내정착	11명	6세대 8명	10세대 10명
정착률	73.3%	72.7%	33.3%

연계사업 추진 실적

2019 ~ 2020
권역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공모사업

사 업 비 3,800백만원
주관기관 전라남도
- 교육, 영농, 숙박시설 설치

2017 ~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사 업 비 40백만원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빈집 리모델링 및 이동식 조립주택 구입 등

2020 ~
쉼표빈집 재생사업

사 업 비 100백만원
주관기관 전라남도
- 마을에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 조성

2022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사 업 비 375백만원
주관기관 전라남도
- 농업관련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 등

2022 ~ 2025
전남농산어촌유학사업

사 업 비 2,927백만원
주관기관 전라남도
- 농산어촌유학 참여 세대에 맞는 주거 공간 제공